

복지관, 한파 대비한 겨울나기 나선다

전국 15만 독거노인 집중보호 실시

올 겨울 혹독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해 전국 시·도가 나섰다.

폭설·한파 등에 대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하고 고립 예상지역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겨울에 취약한 15만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 보호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 동절기 보호대책에는 지난해 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간마을 등 폭설·한파로 인한 전국 고립예상지역 339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대피소 설치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파악한 고립예상지역에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 등을 활용한 임시대피소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도 공동생활가정을 임시대피소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남 의령, 전북 김제, 충남 논산 등 82개 시·군, 총 437개소에 독거노인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독거노인가구의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전국 5500여명의 돌보미를 통해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폭설·한파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경로당 및 센터 등 2개소씩 5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임시대피소 50개소를 지정해 24시간 운영하며, 이에 따른 난방비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

또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집 단열보수, 난방기 사전점검을 하고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집 단열보수의 경우 외부 창문에 비닐 보호막을 설치해 바람을 차단하게 하고 보일러는 '희망을 따뜻함' 만들기 사업'과 연계에 일체 점검을 받고 부품교체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원을 받는 독거어르신은 4만 2천명으로 서울시 전체 독거어르신의 20%를 차지한다. 서울시

인근 경로당 '임시대피소' 마련 결식아동위해 급식 지원

는 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1만 8000명의 독거어르신과 재가 서비스를 받는 700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상시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기본적으로 돌보미가 주1~2회 이상 직접 방문과 안심폰으로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한파가 발령될 경우엔 중앙재난

본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돌보미에게 SMS 문자로 일괄적으로 알려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불교계 복지관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효림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에게 방문해 문풍지와 단열시트를 붙이고 안부를 묻는 등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파 대비 실내·외 건강수칙

1. 겨울철 한파에 적절한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는 체온유지에 도움이 된다.)
2. 적정 실내온도 18~20℃로 유지하고 하루에 2~3차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준다.
3.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
4.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을 해 신체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외출이 꼭 필요할 시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상예보로 확인한다.
6. 오한(惡寒)이 느껴질 경우 즉시 실내로 들어간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식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사

장비를 갖춘 지역 내 시설 아동프로그램과 연계해 급식, 난방비 및 겨울 내의 구입비 등을 제공한다. 불교계 어린이·아동 복지시설로는 연꽃어린이집, 반야어린이집,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가까운 복지관 및 센터를 찾으면 된다. 또한 각 복지단체 및 복지관은 결식아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결식아동을 발견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단체들, 소외이웃에 온기 더해

흥국사·FC붓다·진각복지재단 등 참여

폭설과 한파로 인한 매서운 겨울 바람이 코끝과 눈을 시리게 한다. 날씨가 늦어수록 소외이웃들의 근심은 늘어날까만 한다.

이런 가운데 소외계층을 위한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져 조금이나마 추운겨울에 온기를 더했다.

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는 12월 11일 고양시청에서 저소득계층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108가마(10kg 864포대)를 고양시에 기부했다.

대오 스님은 "불교적 의미를 담은 108가마로 추운 겨울을 지낼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대오 스님은 2009년부터 고양시지역 저소득계층에게 자비나눔 공양미 20kg들이 1200포대를 기부했으며, 2011년에는 10kg들이 400포대를 기부했다. 또한 지난 5월 1000만원 상당의 쌀 10kg들이 400포대를 고양시청에 전달했다.

제가불자로 구성된 축구동호회 'FC붓다(희정 이동경)'는 12월 8일 용인 무법정사(주지 무법)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자선축구행사를 열고 난방비 지원과 축구용품 후원했다.

이날 폭설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FC붓다 16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눈 쌓인 운동장을 달리고 학교강당에서는 공연과 먹거리를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동경 회장은 "청소년의 집에서 겨울 난방비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포츠를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무법정사 청소년의 집은 현재 5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성장해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들도 있다.

FC붓다는 "회원들이 축구를 통해 모였지만 사회와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신체 가꾸기를 첫째로 삼아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쿠쿠사회복지재단(이사장 구자신)과 12월 11일 아름다운동행 1층 사무총장실에서 쿠쿠전기압력밥솥 77대(10인용 밥솥), 약 2000만원 상당의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이런 쿠쿠사회복지재단의 전달식



조계종 흥국사(주지 대오)는 12월 11일 고양시청에서 저소득계층을 돕기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108가마(10kg 864포대)를 고양시에 기부했다. FC붓다(희정 이동경)는 12월 8일 용인 무법정사(주지 무법)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자선축구행사를 열고 난방비 지원과 축구용품을 후원했다.

흥국사...3년째 쌀 보시 FC붓다...축구용품 후원 진각복지...복지응급서비스

은 '쿠쿠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방의 소외된 계층에게 밥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서울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밥솥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아름다운동행은 12월 10~17일까지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기압력밥솥 배부신청을 모집하고 21일 선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혜정 정사)은 12월 7일 성북구 관내 수급자 부부세대 및 독거노인 등 2세대에겐 연탄 2000장을 지원하는 '진각복지 119' 행사를 마련했다.

진각종 통리원장이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혜정 정사를 비롯한 기획국장 및 종무원 25명은 직접 성북구를 찾아 연탄 배달 릴레이 봉사에 나섰다. 진각복지재단은 각 세대 내 연탄을 쌓아놓을 공간이 협소해 1·2차로 나눠 연탄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탄은 혜정 정사 1000장, 정소녀연성회 성북지부 1000장 후원

으로 마련됐다. 진각복지재단측은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문○○(73), 이○○(74) 어르신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정릉 산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능력이 없어 극심한 한파에도 연탄을 구할 수 없어 현재 전기장판에 의존해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진각복지 119'는 사회복지응급서비스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대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119와 같이 신속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진각복지재단의 특화사업이다. 현재까지 150여 명 대상자가 선정돼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금강정사가 위탁 운영하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지난 10월 열린 '철산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겨울나기용품과 후원물품을 지역 내 130여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

또한 12월 1일에는 저소득가정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7가정에 연탄 2000장을 배부했다. 이 밖에 지역 봉사회와 주민 등의 후원을 통해 1800kg의 김장김치를 확보해 경로당 및 저소득 가구 7곳에 전달했다. 이나는 기자

암투병 엄마에게 미안한 사지마비 아들

생명나눔, 12월 선정환자 여정호 씨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여정호(28·남) 씨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고 학비를 벌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생 생활을 꿈꿔온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2011년 9월 14일 일어난 사고로 사지마비와 뇌내출혈 및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된 것.

실상가상으로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지만 업무상 관련성을 입증

하지 못해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는 2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만 하다. 월세 사는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아들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24시간 교대로 간병하느라 경제활동도 못하고 건강상태도 안좋아지는 부모님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올해 6월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자신도 환자이면서 아들 간병을 하느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여정호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후 아내마저 암 투병을 하게 돼 한 가정에 두 명이나 치료를 받는 상황이 기가 막혀 한숨을 쉬다가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이라도 건강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호 군은 관절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관절운동과 근력강화 운동, 기도절대 상태에 대한 훈련 및 식이요법, 화상치료를 위한 피부이식 치료가 필요하다. 아직 젊으니 잘 건디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임을 의심치



여정호(28·사지마비) 씨

않지만 문제는 치료비다. 1000만 원이나 더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희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심봤다! 대풍수 한국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21세기 최대이슈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은 씨가 없으며 누구나, 도인, 신선, 득도로 대풍수가 될 수 있다

역대 풍수지리는 중국 오형발명경과 삼류서적 짜집기를 초월 중국전하를 통일시킨 감여진본 광박 도인과 당일행 도인을 비롯 동양삼국 옥룡자, 도선국사, 일사보감 무학대사에 이어 불불이박박 태일대사와 대가 조장희 도인은 육경신 도통으로 영안 신안 도안 해안을 열어 평생 동안 전국산천에 숨어있는 대혈과 은혈 금시발복 대명당을 진광의 빛으로 난해한 비법을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을 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수지리 저변확대는 물론 앞서 갈 수 있는 풍수지리에 한층더 밝은 미래를 밝히는 바이며 천기, 지기, 수기, 양기, 음기 권력 출세 명예통치 제왕 거부장자가 대대로 자손만대 무무장생 만복이 이어지는 이한권의 천기누설에 도전 하시오고 정사, 야사, 비사 등으로 지역 산천에 들어있는 비천과 역대 도선국사, 나옹선사, 무학대사, 박상회 선생은 원두표를 도기정승으로 만들고 조풍 선생이 잡은 최효문의 딸 무술이가 금시발복 하여 왕비로 영조대왕을 탄생시킨 전국명당과 양반은 씨가 있어도 제왕은 씨가 없는 명당을 천기누설 하는 바이오니 출세 거부장자 성불득도 명예 권력 제왕 통솔에 뜻이 있는 재야인에 등불이 되는 단 한번 기회

당대 금시 발복하는 천하대명당 제왕출현 일만이천도인 출현하는 천하대지터

心 천하대도 임진년 루진룡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성불한다

천지개벽에 모든 제왕을 몰리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득도비전 임진년 누진룡 입문으로 심안, 도안, 신안, 영안, 천안 득도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천하제일의 스승이 되고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성불득도 한다. 이 기도로 누구나 대풍수가 되어 자기주변을 관리관장 할 수 있는 도인이 되는 금강진법 사구계, 수육보영, 진동도, 민족염, 봉천명진법, 육다죽 폐안이요, 육서죽 개안이로다. 심즉 탁이요, 탁즉 복이니라. 영육합일, 즉심시불이로다.

- 이 기도는 2012년 12월 24일 밤 9시부터 25일까지 1박 2일 / ● 준비물 : 간편한 옷, 필기도구

心 천지공사 불선도 달마경신 도통회 총본산 心
 02)821-6622,7767 / 010-3239-3110 불불이박박 합장
 판매처 : 보령력 02)733-0333 금액 : ₩150,000원